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 파월 의장은 오늘(화)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7월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리 가능성은 앞으로 경제 지표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5월 미 채용 공고 작년 11월 이래 최대
- YahooFinance: 애틀랜타 연준 총재 "7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 지수 10.8% 하락...상반기 단위로는 1973년 이래 가장 큰 하락

[무역 전쟁]
- YahooFinance: 트럼프, 관세 유예 마감 다가오면서 '소규모 합의' 방식 추진
- Bloomberg: 유럽연합, 10% 보편 관세 수용하나 다른 핵심 부문 관세 유예 원해
- WSJ: 관세 유예 끝나가면서 아시아 제조 활동 계속 둔화

[주택]
- Bloomberg: 미국 남부 주택 시장, 판매에 더 오랜 시간 걸린다
- Bloomberg: 뉴욕시 '렌트 안정법' 아파트 임대 최소 3% 인상

[인공지능]
- Bloomberg: 연방 상원, 세제 개혁안의 '주정부 AI 규제 폐지' 조항 삭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온라인 쇼핑 성장, 관세로 10년 만에 침체
- WSJ: 소비자 유지 위해 쿠키 포장 작아진다
- Bloomberg: 관세로 자동차 쇼핑 열풍 가라앉아
- WSJ: 아마존, 창고에 인간보다 로봇을 더 많이 투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YahooFinance: Job openings hit highest level since November 2024
5월 미 채용 공고 작년 11월 이래 최대

- 오늘 발표된 연방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5월 채용 공고 숫자가 작년 11월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보고서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에 대한 논쟁 속, 노동 시장의 둔화 여부를 투자자들이 면밀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왔다.
-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5월 말에 채용 공고는 7백76만 개로 4월의 7백39만 개보다 증가했다. 당초 전문가 예정치는 7백30만 개 였다.

- 5월 기간동안 실제 채용 숫자는 5백50만 개로 4월에 채용된 5백61만 개보다는 적었다. 고용 비율이 3.5%에서 3.4%로 낮아진 것이다.
-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대해 신중함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발적 이직률은 4월의 2%에서 2.1%로 상승했다.
- 여전히 고용률과 자발적 이직률은 지난 10년 거의 낮은 수준을 보인다.

YahooFinance 기사

YahooFinance: Fed official sees July rate cut 'unlikely,' sticking with Powell's view that coming months will be moment of truth for tariffs' effect on inflation
애틀랜타 연준 총재 "7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 애틀랜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7월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일 것 같다며 7월 연준 정례 회의 때까지 관세에 대한 물가 여파를 판단할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다.
- 그는 "우리는 한 번 더 인플레 지표를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정책들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여러 면에서 불확실하다는 상황이라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 파월 의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인데 파월 의장은 향후 수개월의 경제 지표가 관세의 인플레 여파를 파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모 형식의 서한을 보냈다.

YahooFinanc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Dollar Index Slumps 10.8% in Biggest First-Half Loss Since 1973
달러 지수 10.8% 하락…상반기 단위로는 1973년 이래 가장 큰 하락

- 미 달러 지수가 올해 첫 6개월간 크게 하락했는데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이었던 1973년 이래 상반기 6개월 단위로는 최악이었다.
- 미 달라 인덱스는 올해부터 6월 말까지 10.8% 떨어져 지난 1973년 상반기의 14.8%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다.
- 트럼프의 무역 및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그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촉구가 달러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관계 전문가들은 추가 약세의 전망 근거로 연준의 완화적인 금리 입장, 경제 둔화 데이터, 정책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YahooFinance: Trump pursues mini trade deals as tariff deadline nears

트럼프, 관세 유예 마감 다가오면서 '소규모 합의' 방식 추진

- 트럼프는 더 이상 많은 국가와 대규모 관세 합의를 추진하지 않고 대신에 관세 부과 예정일인 7월 9일 전까지 소규모 방식의 빠른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 이 같은 소규모 합의로 인해 협상 국가들은 강력한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되지만 협상을 계속하면서 관세 부과에 계속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트럼프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핵심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현재 트럼프는 관세 합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관세율을 정한 서한을 국가들에 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EU to Accept Trump Universal Tariff But Seeks Key Exemptions
유럽연합, 10% 보편 관세 수용하나 다른 핵심 부문 관세 유예 원해

- 유럽연합은 그들 대미 수출의 많은 품목들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허용하지만,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부과받기를 원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미국의 당초 철강과 알루미늄 50% 관세 및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25% 관세율을 더 낮추기 위해 미국이 쿼터와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접근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7월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관세가 50%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Asian Factory Activity Stays Subdued as Tariff Deadline Looms
관세 유예 끝나가면서 아시아 제조 활동 계속 둔화

- 미 관세 불확실성이 수출 주문과 생산을 압박하면서 아시아 제조 활동이 올해 2분기에 둔화를 보이고 있다.
- 아시아 지역의 제조 활동이 줄고 있는데 생산, 주문 감소, 구매 및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 중국의 성장에 약세를 보이고 한국과 대만의 경우도 생산과 판매가 위축되고 인도의 경우에는 수요 다변화 덕분으로 수출 주문과 생산과 판매가 상승하고 있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Homes Are Taking Longer to Sell in US Markets That Once Flourished
미국 남부 주택 시장, 이제는 판매에 더 오랜 시간 걸린다

- 한때 주택 시장 붐을 이루었던 플로리다 선벨트 지역을 포함한 호황 지역들에 팔리지 않는 주택이 쌓이고 있다.
- 주택 소유자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과 금리 인하 기대 상실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고, 투자자들도 임대용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
- 이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주택 판매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좀 더 균형 잡힌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주택 공급 증가를 “정상 회복”이라고 부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는 과거의 치열한 입찰 전쟁과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느껴지게 된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지역의 주택 건설업체들은 매물 소진을 위해 이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 한편, S&P CoreLogic Case-Shiller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여전히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 지역별 격차가 심해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YC’s Rent-Stabilized Apartment Prices to Rise at Least 3%
뉴욕시 ‘렌트 안정법’ 아파트 임대 최소 3% 인상

- 뉴욕시에는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1백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다.
-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1년 임대료 인상을 3%, 2년 임대는 4.5%로 책정했다.
-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입자 단체는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건물주 단체는 운용 비용 증가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현 뉴욕시장은 상승분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고 시장직 후보 또한 임대료 동결을 약속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Senate Votes 99-1 to Strip AI Provision From Trump’s Tax Bill
연방 상원, 세제 개혁안의 ‘주정부 AI 규제 폐지’ 조항 삭제

- 연방 상원은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 미국 주정부 AI 규제 폐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1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되었다.
- 이 조항은 실리콘 밸리의 지도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AI가 음악가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데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테네시주의 Elvis Act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주별 1,000개가 넘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연방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상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업계는 주 AI 관련 법률의 축소를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화당의 핵심 세력이 규제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AI 업계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Online shopping see biggest slowdown in over decade as tariffs disrupt e commerce: Survey
온라인 쇼핑 성장, 관세로 10년 만에 침체

- Alix Partners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온라인 쇼핑 활동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배송 및 반품 정책을 조정 중에 있다.
-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가구 등 주요 품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정 배송 온라인 구매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 관세 외에도 소매업체들은 패키지당 배송 비용이 증가하고, 반품 주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이 조사에 참여한 소매업체 중 거의 절반가량이 무료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 금액을 상향 조정했거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 기사

WSJ: The Battle to Keep Consumers Means Smaller Packs of Cookies and Chips
소비자 유지 위해 쿠키 포장 작아진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재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의 소포장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사이즈가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 실제로, Mondelez(몬델레즈)는 리츠 크래커와 오레오 쿠키의 작은 포장지를 출시했고, 이는 쿠키 및 크래커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0.3% 성장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소매업체들은 이미 치열한 진열 공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제품을 진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했다.

WSJ 기사

Bloomberg: Car Sales Hit a Wall as Tariff-Induced Shopping Spree Subsides
관세로 자동차 쇼핑 열풍 가라 앉아

- 관세 인상 전 구매 수요가 몰리며 한동안 미국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자들이 고가 상품 구매에 신중해져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 6월에는 연간 자동차 판매율이 1,500만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속도이다.
- 자동차 딜러들은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자동차 산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했다. 리서치 회사 Cox Automotive에 따르면, 6월 신차 평균 가격은 48,799달러로, 2019년 대비 28% 상승했으며 관세의 영향으로 가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 분석했다.

Bloomberg 기사

WSJ: Amazon Is on the Cusp of Using More Robots Than Humans in Its Warehouses
아마존, 창고에 인간보다 로봇을 더 많이 투입

- 아마존은 자사 물류 시설에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배치해 시설 내 작업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전했다.
- 현재 전 세계 배송의 약 75%가 로봇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했는데, 이를 통해 물류 센터의 높은 직원 이직률과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 로봇들은 포장, 제품 분류, 무거운 물품 운반 등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향후 이 로봇들을 언어적 명령에 응답하는 '조수' 역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했다.
- Amazon Robotics의 기술 책임자 Tye Brady는 이 로봇들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강조했다.

WSJ 기사

[보고서]

달러 가치, 상반기 10% 넘게 하락…1973 년 이후 최대 낙폭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저조한 흐름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 10% 넘게 하락해 1973 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 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요 6 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상반기 10.8% 하락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